사 설

북한불교 연구 힘신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일정이 논의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가장 큰 타도의 적이었던 북한이 불과 일년도 채 되지 않는 사이에 함께 평화로운 통일을 도모해 가는 우리의 동반자로 여겨지고 있다. 냉전의 논리 속에 민족의 심성까지 멍들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꿈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마냥 꿈에 취하여 달려가기 이전에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진정한 벗이 되려면 참답게 알아야 한다. 환상과 선입견을 벗고 바로 아는 것이 올바른 사귐의 출발이다. 개인 관계에서도 이러할진대, 50여년의 분단을 넘어 남북한이 서로 다시 만나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북한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북한을 바로 아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변화의 길을 걸어온 우리의 반쪽과 비교할 때 우리의 모습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사선택의 판단은 그 다음인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진정한 만남을 갖고, 또 그 만남이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낳지 않고 남북한이 하나되어 큰 상승작용으로 민족의 밝은 미래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참되게 상대방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불교계가 앞으로 민족이 하나가 되어 가는 미래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첫걸음도 바로 '북한 바로 알기'이다. 또 남북한 불교의 화합된 모습을 이룩하는 것이 민족의 하나됨에 불교가 기여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불교계는 우선 북한의 불교를 알아야 하며, 그를 통해 남북한 불교의 화합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러한 바로 알기의 작업에 들여야 할 노력과 비용은 매우 크며, 그에 비해 겉으로 화려한 각광을 받기는 힘든 기초적 작업이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작업들은 종단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불교계의 통일운동이 꽃을 피우도록 밑받침되어야 한다. 그동안 필요성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북한과 북한 불교계에 대한 자료들을 갖추어 나가는데 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불교계 각 종단들도 이러한 기초적인 사업에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하여 불교계 통일운동의 초석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생명 나누는 장기기증

대승불교의 덕목은 6바라밀이며 그 중 '보시'가 으뜸이다. 늙고 병들어 죽어 가는 고통은 살아 있는 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것이 병고이다. 병들어 고통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 순간은 당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 동안 불교계는 '사회구제운동'이 미흡하다는 질책을 많이 받아 왔다. 불교인들이 가슴을 열고 생명의 고통을 감싸는 '생명나눔실천회'가 지난 94년 3월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의 발원으로 발족되어 지금까지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방생이라 하면 물고기 등을 방생할 뿐, 장기기증이나 복지사업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생명나눔실천회'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장기기증 캠페인 200회를 마치고 집계한 결과, 장기기증 신청이 3,818건으로 지난 1년 동안 등록한 2,992건에 비해 크게 신장되었다고 한다.

장기기증은 생전에도 가능하지만 뇌사나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은명을 달리 할 때에도 장기를 기증하여 다른 생명과 더불어 사는 생명연장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흙·물·불·바람의 네 가지 요소가 모여 구성된 하나의 생명체이다. 그러기에 죽어서 썩지 않을 것 하나 없고 버리고 가지 않을 영혼도 없다. 병으로 생명을 마감해야 할 간절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수승하겠는가.

현재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는 각막·심장·간장·신장 등이며, 시신은 의학도의 인체 실험연구에 필수적인 것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보다 많은 생명을 구하는 보시라고 할 수 있다.

〈십지경〉에서는 "온갖 줄 수 있는 물건을 다 주는 것은 부처님의 무상(無上)의 큰 묘지(妙旨)를 구하는 까닭이다"고 하였으니, 남에게 도움이 될 것을 다 주는 것이 부처님의 원력에 가장 가까이 가는 행업이라는 것이다. 죽으면 썩어 없어질 육신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장기를 보시하고 갈 수 있는 불자들의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아귀다툼으로 혼탁해져 가는 사회를 더욱 평화롭게 할 것이다.

그 동안 타종교에 비해서 열악하던 장기기증을 이제 불교인들이 앞장섬으로써, 정토사회 구현에 역군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기원한다.

열린마당

북한문화재 복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북한 언론사 사장단에게 내금강 사찰의 복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 '금강산 사찰복원'이 범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원이 논의되고 있는 신계사를 비롯해 내금강 마하연, 개성 영통사 등 북한지역 사찰 복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도 금강산과 불교에 관한 자료를 집대성한 〈금강산과 불교〉를 연말까지 발간할 예정이다. 모두 4권으로 출간될 자료집은 향후 금강산 지역의 불교문화재에 대한 현장조사와 발굴 및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방침이다.

북한 문화재 보존과 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간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그 의의와 원칙, 방법 및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전문가에게 들어본다.

"생색내기식 복원은 지양"

법타〈평화통일불교협 공동대표〉

북한은 민족의 문화유산을 '사회주의 민족주체 문화건설'의 이념에 따라 주체사상에 근거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만을 선별해 '주체성의 원칙', '인민성의 원칙(대중성)', '현대성의 원칙(복고주의 반대)', '역사주의 원칙(유물사관)'에 입각해 보존하고 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북한에는 현재 국보 제1호 평양성을 비롯해 총 176점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불교문화재는 58점으로 약 33%를 차지한다. 지정된 불교문화재 중 목조 건축물은 24%에 이른다.

남측의 북한 문화재 복구참여는 북한 당국의 '요구'와 참여단체의 '신뢰도', '평화통일 의지나 기여' 등에 따라 양상을 달리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건물이라 해도 수도와 포교의 기능을 요구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북한 문화재 복구 참여는 북한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찰복원은 일단 6·25 전쟁의 피해 사찰 중 천년고찰을 중심으로 한 원상복구 차원이다. 남측의 역할은 고건축 기술자문과 복원비용 제공이 되기 쉽다. 원자재를 비롯해 건설 방식 및 감리 등에까지 참여하려고 할 경우 자칫 복원 논의 자체를 원점화할 수도 있는 현실적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북한 사찰복구 동참은 6·25 전쟁시 불타버린 사찰을 꾸준히 복원함으로써 평화공존, 평화통일의 신뢰받는 디딤돌과 민족문화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 특정 종단이나 단체의 생색내기식 복원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

"'금강산과 불교' 조사 진행"

혜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올해 들어 남북 정상 간의 합의문 발표 등으로 남북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여러 기관과 단체들은 통일을 대비해 활발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조계종에서는 이미 1998년부터 통일을 대비해 북한에 있는 사찰 및 문화재 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 왔다. 현재 북쪽의 사찰과 문화재는 현장 조사 위주의 실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북쪽의 경우 현장조사가 여의치 않다. 뿐만 아니라 문헌 등이 종합적으로 수집·분석되어 있지도 않다. 때문에 조계종에서는 북쪽의 사찰과 문화재 등 불교관련 내용을 본사별로 진행하는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1999년부터 유점사 본말사에 해당되는 지역인 금강산 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조사는 〈유점사본말사지〉 등 200여종에 이르는 문헌의 조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올해는 그 연속선상에서 관련 연구 논문과 번역 등 보다 심도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의 금강산 사찰 및 스님들의 활동과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 공백으로 남아있던 근대불교사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2001년에 〈금강산과 불교〉란 이름으로 4권의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보현사 본말사 등 현재 북한에 남아있거나 과거 존재했던 본사별로 조사를 차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 거대하고 지루한 사업의 시작과 발맞추어 금강산을 비롯한 북녘땅의 북한 사찰 및 문화재의 복원사업 추진 등 앞으로 많은 사업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

강경환〈문화재청 국제교류 사무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따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역사적인 첫걸음이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남북한 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재분야는 남북 양측이 정치적, 이념적 색채를 띠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민족의 화해·협력과 민족문화재의 브존에 기여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간차원에서도 문화재분야에 대한 교류·협력 사업 추진 움직임이 활발한데 민간차원의 사업 추진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했으면 한다.

첫째,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 추진하는 사업이 분단으로 인해 이질화된 민족의 역사를 복원하고 민족문화의 연속성과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겠다.

둘째, 점진적인 개방을 유도하거나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가급적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해야 점차 교류의 깊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북측이 호응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간단체와 정부간의 유기적인 지원·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서독은 민간주도의 문화교류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였으며, 이는 동서독간의 문화교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밑거름이 됐다. 우리도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교류사업들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지원 협력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탁소리

불교인권위의 단견

김 두 식
〈취재1부 기자〉

불교인권위원회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해 불교계는 의료파업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조계종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조계종의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는 지난 22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전공의 2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권력에 의한 억압과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것이 불교계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계 집단 폐업행위가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조계종의 입장"이라며 "이번 기자회견은 불교인권위의 의견일 뿐이지 대한불교조계종이나 불교계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불교인권위가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활동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견이 마치 불교계 전체의 입장인양 말하는 것은 분명 신중치 못한 행동이었다. 설사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하루빨리 의약분업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번 사건은 국민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로 불교계가 사회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실시에 전공의들이 반발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다수의 국민들이 의료파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불교의 생명존중사상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위가 이런 전공의들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돌출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사건마다 성명서를 발표해 성명서의 무게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어 인권위는 앞으로 민중의 고통을 감싸안고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 신중히 행동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일타 큰스님이 남긴 최후의 법문집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이 시대의 청정율사
일타 큰스님이
들려주는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법문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수행자와
재가불자에게 보내는 일타 큰스님의 해탈과
행복의 메시지 108가지.
불교우화집 ≪백유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과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야운 스님의
≪자경문≫ 등 역대 조사(祖師)스님들의
금쪽같은 법문을 소개하면서 불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곡하게 들려주고 있다.
스님의 체험과 인연담을 곁들여가며 때로는
따끔하게 경책하고, 때로는 자상하게 힘을
북돋아주는 스님의 법문에는 자식을 걱정하는
어버이 같은 따뜻한 정이 묻어 있다.

일연학연구원 엮음/신국판 344면/값 10,000원

불교시대사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13층 전화 730-2500, 팩스 723-596

내 마음 속의 부처를 찾는 길

좌선수행법

靜坐要訣 / 六妙法門 / 童蒙止觀 / 四念處

선(禪)과 교(敎)를 아우른 천태지의 대사의
지관좌선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법문 네 가지.

정좌요결
명나라 말기의 사대부 원황(袁黃)이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 체득한 지관수행법을 자세하고 명쾌하게 서술한 글

육묘법문
좌선수행을 근본불교의 수행법인 수(數)·수(隋)·지(止)·관(觀)·환(還)·정(淨)의 측면에서 설명한 수행지침서

동몽지관
좌선수행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입문에서 완성까지 10단계로 정리한 알기 쉬운 수행입문서

사 념 처
근본불교의 선정수행법인 사념처관을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 조명한 수행론

天台大師 · 袁黃 지음 남민수 옮김/신국판 356쪽/ 값 12,000원

불교시대사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13층 전화 723-1679, 팩스 723-5961